

신행 · 포교 소식

봉은사, 서산·사명 장학금 8천만원 수여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5월 3일 범왕루에서 '2015년 서산사명장학 및 봉은장학금 상반기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봉은사는 서산사명 장학생 62명에게 총 4950만원, 봉은장학생 15명에게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 주지 원학 스님은 "신도님들의 지극하고 따뜻한 정성으로 모인 장학금이

회되지 않도록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학문의 길을 열심히 닦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봉은사는 불교인재 양성 및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서산사명장학금과 봉은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전서도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 열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는 5월 3일 대전 응봉정거리에서 마곡사 풍물패의 사물놀이, 타악기 연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 2015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한 제6교구 말사의 주지 스님 등 약 30여 명이 약 30분간 인근 거리를 돌며 탁발을 실시했다. 이날 모인 성금은 다시 행복바라미 모금함에 모아

져 해당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탁발을 제안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처음 해본 탁발이지만 행복바라미가 앞으로 전국 범위의 나눔문화 캠페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5월 14일까지 전국 140개소에서 행복바라미 모금캠페인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5월 29일까지 예비군승 모집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포교원력을 갖고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포교에 진력할 '예비군승(비구·비구니스님 요원)'을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응시 희망자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미계 수지 이상의 비구 및 비구니 스님으로 4년제 대학 졸업(예정)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관년도 연령이 만35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노덕현 기자

승은 군종장교 선발 시 육해공군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한 뒤 군사철 주지로 임명돼 군포교에 매진하게 된다. 희망자는 소정 양식의 지원서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승적증명서, 사진 등을 구비해 군종특별교구 종무실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6월 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의식, 설법, 교리, 가치관, 상식, 인성검사 등을 평가한다. 노덕현 기자

도선사, 지진피해 네팔 구호에 팔 걷어 부쳐

네팔불자회, 5월 3일 도선사와 공동 모금 법회 열어

지진피해로 큰 난국에 빠진 모국 동포들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불자회가 도선사와 공동으로 모금법회를 5월 3일 도선사 야외법당서 펼쳤다. 이 자리에서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우리의 이웃 불교국가인 네팔 국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며 "가족과 자신의 터전을 잃은 슬픔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네팔 국민들에게 실시일반 힘을 보태 위로하자"고 당부했다. 네팔불자회 회장인 이소리 구름씨(49)도 "한국불자들의 뜨거운 온정에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고교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크나큰 재앙을 겪어 고통스러워 하는 우리의 동포 형제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부처님전에 매일 기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 잔여 임기동안 네팔과 한국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인사말에 이어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을 비롯해 교역직 스님 10여명이 미리 설치된 모금함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법회가 열린 야외법당은 네팔 불자들이에게도 의미가 깊은 장소였다. 불교계 대표적 신행단체인 '선목 혜자스님과 마음으



도선사 야외법당서 네팔 불자회와 도선사가 공동 모금 법회를 펼치고 있다. 오른쪽 아래사진은 법회가 끝난 뒤 네팔 카만싱라마 대사에게 도서 스님이 기념품을 전달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2013년 룸비니서 이운한 평화의불 앞에서 진행 네팔불자회 1993년 창립... 월 1회 도선사서 법회

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대한민국의 60주년을 맞아 지난 2013년 5월 평화의불을 위해 부처님 탄생성지인 룸비니서 채화한 평화의 불이 모셔져 있다. 또한 그 불단위에도 네팔서 가져온 불상이 있어 네팔인들에게는 친숙한 장소다. 네팔불자회가 창립된 것은 1993년이다.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3백여명이 활동중이다. 부회장인 라메씨(37)는 "네팔과 인연이 깊은 도선사측의 배려로 2

년전부터 매일 첫째주 일요일마다 월 1회씩 자체적으로 모여 법회를 열고 있다"며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 등지에서 오는 회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에 온지 9년 정도 됐다는 타시엘라(31)는 "네팔불자회 사무실이 없어 모일 수 있는 여법한 공간이 없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도선사측에서 자료나 법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은 "도선사도 각종 규제 등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 당장은 청을 들어 주기가 힘들다"며 "하지만 네팔불자

회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도선사 신도 무량심 보살(63)은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더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동업종생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위로하고 돕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법회에 동참하고 나니 불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환희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네팔불자회 회원 30여명과 도선사 사부대중 70여명 등 총 1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제3기 청소년10분 집중명상 지도자과정 입재

포교원 인증 초·중·심화 3단계 탄허기념박물관서 진행

금강선원(선원장 헤거)은 5월 2일 서울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수탁운영하는 제3기 청소년10분 집중명상지도자 과정 입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재식에서는 스님과 현직 교사, 의료계 종사자를 비롯한 청소년지도승 관계자 28명이 연수에 들어갔다. 지도자과정은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심성개발프로그램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헤거 스님과 함께 10년 넘게 금강선원에서 청소년 기초참선을 지도해온 김우현 교사가 맡는다. 헤거 스님은 1부 입재식에서 그동안 집중명상을 지도받은 17명 학생 중 13명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님은 "참선 명상지도에 앞서 먼저 아이들이 우리사회와 세계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끄는 사명을 지닌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참선 명상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이날 입재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발원문 봉독에 이어 헤거 스님의 법문 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박물관 관람, 오리엔테이션, 청소년 명상프로그램 안내 등과 함께 본격적인 연수과정이 진행됐다. 한편, 연수는 초급(5월2일~6월 27일), 중급(7월 18일~9월6일), 심화(10월24일~12월5일) 3단계로 탄허기념박물관과 인근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진행하며 템플스테이와 현장 실습 등이 포함된다. 노덕현 기자

"사회 곳곳서 밀교정신 실천하겠습니다"

위덕대, 제 1기 위덕진각봉사단 발대식 거행

위덕대(총장 홍욱헌)는 4월 30일 위덕관 대회의실에서 홍욱헌 총장 및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누리 사무처장과 봉사단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기 위덕진각봉사단 발대식'을 거행했다. <위덕진각봉사단>은 3대 건학이념 중 하나인 '이타자리(利他自利)'를 바탕으로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대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5년 위덕사회봉사단으로 출발해 발전 과정을 거쳤다. 특히 올해는 설립중단의 이념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위덕진각봉사단으로 새 출발을 한 것이다. 이날 선서소 봉양방재공학과 2학년 이승운 학생은 "위덕진각 봉사단원이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진각 봉사단의 일원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홍욱헌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선서를 시작으로 봉사 활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마음가짐



을 오래도록 유지해 대학생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도 성장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포교사 역할을 많이 해 주길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위덕진각 봉사단은 이 발대식을 계기로 봉사하는 대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내외의 많은 단체와 협력한 봉사 활동을 계획 중이다. 김주일 기자



명당발복(풍수), 천도재, 사업번창, 용궁재

개운발복 운이 찾아오는 영험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사업자를 위한 사업재수(事業財數)발원 독불공

부처님 가피로 증득한 천안통과 타심통으로 중생구제를 실천하시는 선승의 밝은 해안으로 고(苦)의 원인을 찾아 풀어드립니다. 삼보와 그 화신인 천지신명과 조상의 발복(發福)으로 힘을 입고 선승의 법력과 재가자의 하나된 마음으로 불보살님을 감동시켜 고(苦)를 벗어나, 금시발복(今時發福)하는 복력증장(福力增長)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도청(禱請)하시어 영험함을 경험해보십시오.

동국스님 친견 상담 예약 : 010-3676-5555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201-27 (대부북동) 홈페이지 | www.manbulla.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kihealing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으로서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을 인식하여 불교사상 및 정신문화를 전달·보급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방송과 현대 미디어 발전 상황에 대한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방송(BBS)의 현안 해결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을 BBS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자격

- ①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
②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에 맞추어 불교정신과 사상 및 불교문화를 전달·개발·보급할 강한 의지를 가진 분
③ 방송에 대한 식견을 갖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응할 방송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지도하고 뒷받침할 역량과 경력이 있는 분
④ BBS의 청사진 및 방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재원 발굴과 증대 등 경영 능력의 발휘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
⑤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부 (사진/ 상벌사항/ 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필수)
② 경영계획서 1부 (A4 5매 ~ 10매)
③ 수계증 등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④ 기타 의견서 (선택사항임)

• 제출(응모) 기간

2015년 5월 27일(수) ~ 6월 12일(금) 18:00 (12일 우편소인 유효)

• 제출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02-719-1855, 교환 210)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림빌딩 15층

• 면담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참고사항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2인) 추천 후 BBS이사회에서 1명 선임함(BBS정관 제5조 5항).